

영산강 244km 자전거길 뚫렸다

담양~목포 완전 개통...섬진강길은 내년말 구축

총 1757km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완성

영산강 자전거길이 22일 완전 개통돼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감상하며 시원하게 뚫린 자전거길을 달릴 수 있게 됐다.

섬진강 자전거길도 내년 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시, 전남도는 나주 죽산보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열었다.

또 이날 낙동강 자전거길 등 전국 10곳이 동시에 개통되면서 총 1757km에 이르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완성됐다.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식에는 자

전거동호회원과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행사는 나주 죽산보~동강대교~영산강 하구언 구간에서 펼쳐졌고, 자전거길 지킴이 발대식과 황포돛배 체험행사 등이 이어졌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광주~나주~함평~무안~목포를 연결하며, 길이는 244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3km 구간은 끊기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종주 노선이고, 나머지 111km는 강 건너편 시가지 구간을 따라 조성됐다.

개통 행사와 함께 영산강 자전거

길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인증제는 담양댐~영산강 하구언(목포) 종주노선 133km를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담양댐과 메타세쿼이아길 매표소, 대나무숲, 승촌보, 죽산보, 목포 황포돛배 매표소 등 7곳에서 인증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또 이날 낙동강 자전거길, 경인자전거길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4대강 길을 따라 조성됐던 1800km의 자전거길이 모두 완공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서구 아라뱃섬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및 '투루드 코리아 2012' 개막식에 참석, 4대강 자전거 길을 포함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개통을 축하했다.

또 투루드 코리아는 이날 인천 아라뱃섬 정서진에서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서울~부여~광주~여수~거창~구미~영주~충주~여주~하남까지 총 1088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정부는 국토종주길과 4대강길을 '명품 자전거길'로 글로벌 관광명소화하기로 했고, 투루드 코리아 행사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통합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페스티벌로 격상, 매년 4월 하순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섬진강하구부터 섬진강댐까지 134km를 연결하는 섬진강 자전거도로는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암~순천 남해고속도로 27일 개통

35분 단축...26일 남순천 영업소서 개통식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오는 27일 새벽 0시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오는 26일 순천시 남순천 영업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구간 개통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조2646억원이 투입된 이 고속도로는 총 연장 106.8km이며, 서영암IC~남순천IC까지를 기존 1시30분에서 65분으로 35분가량 단축시켰다.

또 이 고속도로는 목포~영암, 순천~광양 국도와 연결돼 있어 북포에서 광양까지 기존 2시간 거리가 1시간으로 절반 가량 단축돼 연간 1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여수세계박람회와 내년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 개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고속도로에는 순천만, 벌



교, 보성, 장흥, 강진, 학산, 서영암 나들목이 운영되며, 고흥 나들목은 올 해 말 문을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용물건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등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등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민간기업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보다 빠른 남해~여수 뱃길

대형여객선 운항 30~40분 소요

남해 등 경남지역 관광객들은 배를 타면 더욱 수월하게 여수세게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행사장에 올 수 있게 됐다.

경남 남해군 서상항과 박람회 행사장 간 뱃길을 이용하면 승용

차(1시간 40분)보다 훨씬 빠른 30~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남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남해 서상항 정비사업이 최근 완료돼 여수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남해 뱃길에는 71t급(정원 55명) 소형 여객선 1척만 운행했지만 박람회 기간 중 최대 1300t급(정원 1049명)의 대형여객선을 비롯해 4척의 여객선이 운항한다.

여수에서 남해까지 육상 거리는 80km 가량 돼 승용차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뱃길은 10km에 불과해 30~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 구간 정식 여객선 운항에 앞서 23일~5월 8일 시험운항한다.

/오광록기자 kroh@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이 20일 오후 광주 호텔 프라도에서 열린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발전 위해 모두 힘 모으자”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식 성료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식이 20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호텔 프라도 대연회장에서 김여승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여승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영 악화와 매체 다각화로 인한 언론환경의 급변화 속에서도 광주일보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호남 최대 정론지로서 자리를 지켜왔다”면

서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 표창과 우수 지사·지국에 대한 시상도 실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 광주서 열린다

광주시가 2013년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갖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개최 도시로 광주시를 최종 확정했다.

개최도시 선정은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제안서 공모로 추진했다. 응모한 광주, 안동, 구미, 창원을 두고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선정심사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가 차례로 심사에 결정했다. 광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편리한 교통여건, 시설 편의성 등이 높다는 점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최종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개최지 선정 결과는 이달 말 유네스코 사무국에 공식 통보된다.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내년 5월 23~25일 개최되며, 자문위원과 각국 기록유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뒤 1년 만에 광주 IAC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세계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재청, 유네스코와 긴밀한 협력해 IAC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결산한 결과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147.8%를 달성, 전국 평균(97.1%)보다 50.7% 포인트 높았다.

시는 지난해 300억원을 징수, 목표액(203억원)을 97억원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260억원을 겨우 목표액

(243억원)을 간신히 넘겼다. 2010년 기준 이월 체납액은 광주가 677억원, 전남은 810억원이며 전국적으로 3조 4059억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체납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과 시행,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활용한 현장추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라남도 스포츠시설 및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2년 스포츠시설 및 모터스포츠경기운영
전문가 교육생 모집

국가와 전라남도의 전략사업!

최고의 스포츠시설 및 모터스포츠강사진으로 구성!
F1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운영 실무중심 교육!
F1경기장의 활용증대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과정개요 |

- 교육기간 : 5월 12일 ~ 10월 27일 ○ 교육인원 : 30명
- 교육장소 : 목포대학교, F1경기장
- 교육시간 : 총 251시간(이론52, 실습199)
- 교육문의 :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 061-450-6095 / 010-4555-5309)

| 교육신청 |

- 신청자격 : 전라남도 거주자로 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 졸업예정자(전공관계없음)
- 신청기한 : 2012년 5월 9일(수) 오후 6시까지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홈페이지(http://jobsports.co.kr)공지사항 신청서 다운 후 메일접수 E-mail starts1205@naver.com
- 특 전 : 1. 매월 10만원 상당 교육비 지급(교통비 및 활동비)
2. 모터스포츠 오피셜/미살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3. 교육수료자 전원 수료증 발급
4. 2012년 F1코리아그랑프리 오피셜로 참가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주최 :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 주관 : 전라남도
- 운영 : 목포대학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단
- 지원 :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hong79.com

클래식 소파 100% MADE IN ITALY

모던소파 100% MADE IN ITALY

클래식 식탁 100% MADE IN ITALY

앤틱식탁 100% MADE IN ITALY

홍스케이스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
이태리가구 빌딩 400평 매장
원목가구 세일